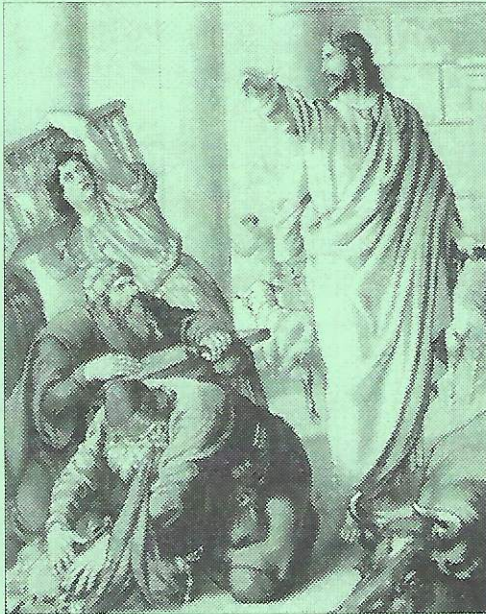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축일 연중 제32주일
http://www.103skcc.org 제34권 50호(가해) 2014년 11월9일

[묵상]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이로 만물을 지마라.

‘이 성전은 내가 세운 성전이 아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재물과 욕심만 쫓는 성전,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들.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들.
남을 속여 내 욕심을 채우려는
강도 같은 모습?
함부로 남을 헐뜯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대고,
미워하는
장사꾼 같은 모습?

성전은 성전다워야 합니다.
시장터나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잡상인들과 강도들을 하루빨리 몰아내십시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사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전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124위 시복특집 < 10 > 정복혜 칸디다(?-1801)

... 천주교를 믿으면 평소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족같이 서로 도와준다.
너는 형제가 없어 외로울 터이니 믿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 과부’라고 알려진 정복혜 칸디다는 서울 전농동 근처 양인집 안에서 태어나 혼인 후에도 한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90년 무렵 이합규를 만나 천주교 신앙을 접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아 입교하였습니다.

이후 정복혜는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면서 친정 오빠와 아들을 입교시켰습니다. 또 과부가 된 뒤에는 양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수많은 부녀자들에게 선교하였습니다. 정복혜는 교우들이 만든 교회 서적을 팔거나, 신자들 사이의 연락을 도맡으며 때론 교리를 강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대부분의 초기 순교자들이 그러하듯이 그녀에 대한 전기적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아들 윤석춘에 대한 포도청 신문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집니다.

천주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어머니에게 어느날 윤석춘이 “천주교를 믿으면 어떤 이로움이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복혜가 대답했습니다. “천주교를 믿으면 평소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족같이 서로 도와준다. 너는 형제가 없어 외로울 터이니 믿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그 무렵 천주교를 선교할 때 대개 두 가지를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뒤 좋은 곳(천당)으로 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한편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정복혜는 먼저 성물과 서적을 한신애의 집에 숨겨 두고 교우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활동을 때문에 얼마 안 되어 그녀의 이름이 박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포졸들이 한신애를 체포하면서 모든 교리서를 압수하였고, 정복혜도 곧이어 체포되어 형조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때 형조에서는 일단 정복혜를 포도청으로 옮겨 문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형조로 데려와 문초와 형벌을 가하면서 그동안의 행적을 추궁하고 배교를 강요하였습니다. 정복혜는 잠시 마음이 약해졌으나, 곧 이를 뉘우치고 자신이 한일을 뉘우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1801년 5월 14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습니다.

당시 형조에서 정복혜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수많은 부녀자들에게 선교하여 입교시키고, 천주교 서적과 성물을 모아 한신애의 집에 묻어 두었다가 박해가 지난 뒤 다시 천주교를 전파하려 했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시간을 사랑하는 여성

내가 살아있기에 새롭게 만나는 시간의 얼굴
오늘도 나와 함께 일어나

초록빛 새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네요
하루를 시작하며 / 세수하는 나의 얼굴 위에도
아침인사를 나누는 / 식구들의 목소리에도
길을 나서는 나의 신발 위에도
시간은 가만히 앉아 / 어서 사랑하라고 나를 재촉하네요
살아서 나를 따라오는 시간들이
이렇게 가슴 뛰는 선물임을 몰랐네요

이해인의 시 <시간의 선물>

얼마 전에 우리 수녀원을 방문한 내 여중 시절의 친구들을 만나니
옛 앨범과 대조해야만 그 모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휴양을 하기 위해 본원에 들어온 환자 수녀들을 만나면,
수십 년 전 건강하고 젊은 날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정해 오곤
합니다.

책에서 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았던 독자들이 지금의 나를 만나
면 그 달라진 모습에 실망감을 표현해서 나를 종종 당황하게 만들
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할 말이 없으면 곧잘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
는데, 비록 체면상 마지못해 하는 말이라고 해도 나는 그 말이 마
음에 듭니다. “웬지 전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금의 수녀님
모습이 더 좋아요.”

누구라도 세월이 주는 변화는 막을 수가 없고 이 무게를 선물로
받아 안아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거울을 자주보진 않지만 얼굴의
주름과 흰머리가 말해주는 나의 노년을 깊이 실감할 때가 있습니
다. 성당이나 식당에 앉아 까마득한 후배들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느끼곤 합니다. 빨리 가는 시간에 대한 불평과 탄
식을 새로 오는 시간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삶의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체 시간이 왜 이리도 빨리
가는지!’라고 푸념하고 싶을 때 나는 ‘가기도 하지만 다시 오는 시
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라고 바꾸어 말해 봅니다.

어느새 인생의 오후를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더욱 새로 오는
시간들이 고맙고 소중하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
받은 기쁨에 새삼 설렘 적이 많습니다. 게으름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릴 때도 없지 않지만, 내게 남아 있는 시간들을 알뜰하게 사용하
려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오늘의 나를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일상의 길 위에서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고, 한 번이라도 더 웃고,
한 번이라도 더 용서하는 수련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게
오는 시간을 새롭게 사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은 두려움의 무게로 살아오지만
이제 그와는 못할 말이 없다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미움도
그에겐 늘 담담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
시간은 날마다 지혜를 쏟아내는 이야기책
그러나 책장을 넘겨야만 읽을 수 있지
살아있는 동안 읽을 게 너무 많아 나는 행복하다.
살아갈수록 시간엔겐 고마운 게 무척 많다...
고 다시 노래하면서.

◆이해인 수녀·시인 /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공지사항

◆103위 앙상블 단원모집

- 자격 : 중학생 이상으로 초견연주가 가능하고
금요일 저녁 연습이 가능한 학생
- 연주 : 한학기에 2~3회
- 문의 : 진영선 크리스티나 ☎(310)781-0856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 교우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본당 소년 레지오마리아 단원(그리스도의 어머니 Pr.)모집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권면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
- 주회 : 매주 금요일 오후 4:30pm
- 장소 : 성당2층 교실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단장 ☎(310)709-3343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 관심있으신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공동체를 위한 “ 함께 삶의기쁨을”

작은예수회 L.A. 분원에서 공동체를 위한 행사를 합니다.

- 일시 : 11월15일(토요일)
- 미사 : 11시
- 식사 : 정오
- 장소 : 작은예수회 LA분원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213)820-6535

◆ 제27기 커피 교육 안내

- 일시 : 11월 16일(일요일) 낮 2시 ~6시
11월 17일(월요일) 저녁 6시 ~10시
양일중 택일하여 수강후 10회 실습
- 장소 : 성 아그네스천주교회 회의실
- 수강료 : \$200
- 문의 : 323-731-4433(사무실)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양금 안나 991-4838 11/15(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요한 701-6343 11/8(토) 오후 6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14(금) 오후 7:30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 오780-3258	김대우 비오 920-7647 11/15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홍광선 요셉 991-8556 11/8(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안나 750-0540 11/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11/2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11/7(금) 오전11시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상철 크리스토퍼 11/8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최기호 스테파노(213)222-3168 11/3 (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749-3151 11/8(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유근우 알렉시오 735-3722 11/14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재준 요한 793-6157 11/15 (토)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병록 요셉 503)927-0770 11/14(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혜은 모니카 377-6752 11/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 회장단 회의 오후1시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위령성월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모든 죽은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있습니다.

◆ 무료 독감주사 안내

- 일시 : 오늘주일 (9일)
- 장소 : 11시 미사후 야외 천교장 또는 강당
- 주최 : 사회복지분과
- 협찬 : 수호천사보험

◆ 요셉회 11월모임안내

- 일시 : 11월 16일 (주일) 11시미사후
- 장소 : 강당
- * 추수감사절 특별점심 준비중, 부부동반 환영

◆ 제33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 일시 : 11월2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엘도라도파크 (Long Beach소재)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즈 주교님
- 주관 : 성 바실 성당
- 준비물 : 햇빛가리개 모자
- 점심 : 본당 제공
- 카풀 : 당일 오전 9시까지 성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행사당일 오전 9시30분까지는 공원주차 무료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와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

◆ 2014년 남가주 푸르실로 송년의 밤 행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일시 : 2014년 12월6일 (토요일) 오후6시
- 장소 : 성 바오로 성당 (St. Paul Korean Church)
- 티켓 : 10불
- 문의 : 남해나 분다 ☎ (310)384-3289

◆ 남가주 한인 M.E sharing 송년 파티

- 일시 : 12월13일(토요일) 저녁 6시
- 장소 : The Center at Sycamore Plaza (Lakewood Community Center)
- 연락처 : 정동호 하삼바오로 ☎(310)780-9055

◆ KCYD (Korean Catholic Youth Day)

FIAT 주최로 매년 열리는 한국어 카톨릭 청소년의 날 KCYD (Korean Catholic Youth Day)이 2015년 1월 3일 토요일 애나하임에 있는 Servite High School 에서 열립니다.

- 일시 : 2015년 1월 3일 (토요일)
- 장소 : Servite High School (애나하임)
- 대상 : 8학년 ~12학년
- 신청마감 : 12월 14일까지 \$30, 21일 까지 \$40
- 문의 :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점심식사와 기념셔츠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9일(주일) * 하버카슨 : 무생채 비빔밥 (\$3)
* 주일학교 : 미트볼 샌드위치 (5학년)]
- 11월16일(주일) * PV 1반 : 육개장 (\$4)
* 주일학교 : 스펀 무수비 (4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인모 구자운 권오상 김 옥 김린다 김선제 김성현 김양금 김원모 김충섭 남명자 민성원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석순영 성낙호 성미선 송영미 송재훈 오명섭 오상준 오수인 오일순 이귀분 이근모 이병우 이영희 이은록 전정일 정지숙 주대종 주용순 최기남 한장환 영희 가보라	강인모 구자운 권오상 김 옥 김린다 김선제 김양금 김원모 김충섭 민성원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석순영 성낙호 성미선 송재훈 오수인 이귀분 이근모 이병우 이영희 이은록 정지숙 주대종 주용순 최기남 한장환 영희 가보라
합계 : 3,930	합계 : 2,370
2차헌금 : \$819	
주일미사 헌금 : \$2,910	주일학교 수표교환 : \$ 480
광고비 : \$ 900	성물부수익금 : \$ 794

우리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

오늘은 로마의 주교좌 성당인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으면서 324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라테라노 대성전을 지어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대성전을 들어가다 보면, 문에는 “로마와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요 으뜸”이라는 라틴어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라노 대성전의 봉헌 축일을 지내는 이유는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대성전 맞은편에는 거지 차림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동상이 서 있는데 전해오는 사연이 재미있습니다. 인노첸시오 3세 교황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설립 승인을 망설이던 중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은 꿈속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당시 교황청이던 라테라노 대성전이 허물어져 가는데, 당황하는 교황님 앞에는 거지차림의 청년이 자신의 두 어깨로 대성전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수도회 설립을 인준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황님의 꿈에 나타난 모습대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인 채 무너져 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하느님과 인간을 위한 헌신,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청빈과 단순함,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로마의 화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돈으로 바꾸어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인 동물들도 각 가정에서 가져와야 했으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 안에서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욕심이 작용하기 마련이라 점차 부정과 부패에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환전상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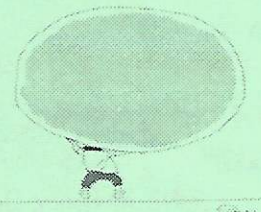
2,16)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를 질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진정한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의 몸과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1코린 3,16)고 하십니다. 이처럼 성전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머무시는 영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역시 우리가 늘 정화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의 성전인 자신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전인 이웃형제를 소중하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거룩한 마음, 착한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주변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허영엽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욕망- 매이다



내려오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 고단함 모두 끝일 줄 알았습니다.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바람소리 들으며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다 내려왔는데 잠시도 숨을 돌릴 겨를이 없고
보이는 거라곤 내 발등뿐입니다.
도대체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요.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남성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복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남성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3반

토 요	(연)민찬기 요한, 김귀영 & 권순기, 정삼용
특전미사	(생)김씨나 클라라, 성영님 엘리사벳 & 성유진 로렌스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박무성, 고준희 제임스, 송근섭 발렌티노, 전시웅 요한, 김옥순 소피아, 김복순 막달레나, 송종복&양옥분 켈라, 이석진 가브리엘, 이종갑 부르노, 안병무&유무서&안준환 미카엘, 신대진 베드로, 민희철 베드로, 김홍운 요셉&박부레, 김동영 베드로, 세상을떠난영혼들 (생) 반비오&반나영 체칠리아, 현시영 요셉, 변혜경 올리안나, 오미령 테지나, 오영석 야고보, 김기정 루시아&김옥보 안나, 이행자 리드비나, 안나회원들, 안나회 행사 후원과 봉사를해주신 형제 & 자매들, 오창근베드로신부& 오마우라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제키엘 (Ezekiel) 47, 1-2.8-9.12

화답송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 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
○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 녘에 구해 주시네. ㉠
○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 ㉠

제 2독서 코린토(Corinthians) 3, 9-11.16-17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복 음 마태오(Matthew) 11, 25-30

영성체송 너희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 있는 돌이니,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242	142	242
봉헌	378	261	209
성체	291	280	280
파견	95	95	181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선택

2)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는 성령

그러나 동방 교회 측에서는 신령의 불가침성을 고집했다. 토론 끝에 마침내 다음과 같은 중재안이 제시되었다. “라틴 교회의 성인들과 교부들은 ‘성령께서 성부 그리고 성자에게서 발출한다.’ 고 말한 데 반해, 그리스 교부들은 ‘성자를 통하여’ 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사실 모든 성인들은 성령의 그느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다른 말로써 동일한 사실을 가리켰음이 틀림없고, 그들의 신앙은 일치함이 분명하다.” 결국 이 중재안이 수용되어서 동·서방 교회는 상대방 입장이 정통 신앙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였다.

동방 교회에서는 ‘필리오케’라는 표현을 신령에 끼워 넣을 필요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추가 구절이 정통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성령께서 아버지과 아들로부터 발하신다.’는 서방 교회의 입장과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발하신다.’는 동방 교회의 입장은 성령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라기보다 성령의 발출에 대한 표현의 차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성령에 관한 또 다른 이단

교회의 역사에서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계시나 환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광주의자들이 종종 등장하였다. 이들은 교회의 선택을 내세우면서 엄격한 생활을 강조하는 가운데 빛나간 성직자와 교회의 제도를 신랄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몬타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다.

몬타누스는 자신이 성령의 예언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예언’, 곧 신약과 구약의 계시를 능가하고 개선하는 종결적인 계시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예언자로 자처하는 광신적인 두 여성,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미 퇴색한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그들은 임박한세상의 종말을 선포하며 교회가 너무 속화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엄격한 금욕주의와 순교를 강조했다. 많은 이들이 이들을 추종하였는데, 심지어는 당시에 명성을 떨치던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조차도 207년경 몬타누스주의에 빠지게 된다.

몬타누스주의는 가톨릭 교회가 배교자에게도 다시 한 번 속죄의 기회를 준다는 이유에서 교회를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성령을 받은 자’로 자처하였던 몬타누스주의의 지도자들은 교회로부터 단죄를 받았다.

<◆계속>